

살펴 보기

: 인물 탐방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그 날까지!



성우하이텍 안전관리자
문병생 차장

사업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자의 손에는 많은 노동자의 생명이 걸려있다. 타인의 안전에 대한 책임감도 무거울 텐데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이도 바로 안전관리자다. 오늘도 안전관리자들은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생명을 지켜내고 있다. 그리고 여기 동료의 환한 웃음을 지켜준 또 다른 이가 있다. 바로 성우하이텍 문병생 차장이다.

사진 이승환 | 인터뷰 박민승 부산경남지역본부 사내기자 | 정리 편집실



박민승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경남지역본부
사내기자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람

누군가 그랬다. 사람은 사람으로 치유한다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도 결국 사람이라고. 꼭 의사나 소방관일 필요는 없다. 생명에 대한, 안전에 대한 마음이 짐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곳 경남 양산의 성우하이텍에도 사람을 살리는 손이 있다.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 성우하이텍 안전관리자 문병생 차장이다.



“일하는 중에 급하게 연락을 받았어요. 금형공장에서 직원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정신을 잃었다고요. 일단 구급차를 부르라고 하고 달려갔습니다. 이쪽 지역이 양산 시내랑 거리가 있어서 가장 가까운 소방서에서 출동해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마음이 급했죠.”

구급차를 불렀어도 마음은 다급했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진 직원의 상태를 살폈다. 심정지인 듯 했다. 구급차만 기다리면 늦을 게 뻔했다. 일단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다. 호흡이 돌아왔을 때 구급차가 도착했다. 직원은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상태가 호전되어 5월 31일에 퇴원했다.

“퇴원했다는 말을 듣고 나니 비로소 안심이 되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동료 중 누군가를 잃는다는 건 생각해본 적도 없어서 정말 아찔했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은 물론 보건 관리도 더욱 신경 써야겠더라고요.”

더욱 안전한 사업장을 위해

하인리히 법칙이 있다. 이 법칙에서는 사소한 것이 큰 사고를 만들고, 작은 사고 하나는 연쇄적인 사고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유사한 작은 사고와 사전 징후가 나타난다는 법칙이다. 이는 결국 예측할 수 없는 사고란

없다는 뜻일 것이다. 문병생 차장은 현장 작업자들과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와 경영진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면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지 말고 꼼꼼히 점검하고, 사업장에서는 기본안전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고.

특히 현장 관리감독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안전관리도 잘 된다고 전한다.

지난사건 이후 성우하이텍에서는 문병생 차장 주도로 안전관리 교육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안전관리자가 없더라도 현장 관리감독자들이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할 수 있도록 말이다.

“안전관리자는 정말 보람이 큰 직업이라 생각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산업현장을 만드는 것은 곧 내 동료들의 가정과 환한 웃음을 지키는 일이거든요.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 어떤 일이든 노력한 만큼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내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큼 든든한 것이 있을까. 문병생 차장이 있기에 글로벌 시장을 향한 성우하이텍의 비상은 언제나 파란불이다. 🍷